

공원녹지 네트워크와 유형화

- 서울 금호동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

강연주* · 배정환**

*(주)우리엔디자인펌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서울시의 공원녹지는 주거지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주택 재개발사업과 함께 양적,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지역의 생활권 공원 및 녹지의 계획과 설계는 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의 연계나 네트워크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과 법적 규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적 기준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미시적 스케일에서의 개별적 공원녹지의 개념에서 거시적 스케일의 공원녹지의 개념 및 위상의 재정립의 과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 성동구 응봉산 근린공원 주변으로, 단절된 생태적 연결고리 주변의 주택 재개발지역을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행정구역상 금호 1, 2, 3가동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이며,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재개발 완료시점 이후의 계획도 고려하였다. 대상지 내의 도시공원 및 녹지와 공동주택 옥외 공간의 네트워크가 연구의 주된 목적이며, 이를 통해 공원녹지의 체계와 유형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상하고자 한다.

II. 공원녹지와 네트워크

도시공원 및 녹지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에는 이의 면적 확보가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의 실질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정립되지 못한 형편으로, 법적 기준은 주로 유치거리에 의한 도시공원의 면적 확보, 건폐율과 시설율의 규정, 식재밀도와 같이 공원 사이의 관계나 공원녹지의 내부적 규제 등에 치중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네트워크와 연계를 구상한 기존의 연구들(성현찬과 신지영, 2005; 사공정희 등, 2007)은 공원녹지의 접근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추가적인 녹지의 조성을 제안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녹지의 확보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적 방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주택 재개발지역의 경우,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의 생

활권 공원은 공동주택 내부의 휴게 및 운동 공간, 어린이놀이터 등과 그 기본적인 기능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공원녹지와 공동주택의 옥외 공간 계획은 서로 무관하게 각자의 내적 질서에 의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며, 따라서 각각의 물리적인 기능들은 상호 충돌을 일으키기 쉽다. 이는 통합적인 계획의 부재와 설계의 순차적 발생, 조성 주체의 개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상대적인 심리적 배타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공동주택의 옥외 공간은 공공시설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원녹지와 그 기능적, 구조적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옥외 공간은 그 속성상 본질적으로 공공적인 위상을 갖게 되며(임승빈, 2007),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각각의 분리되고 폐쇄적인 성향은 오히려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강석진 등, 2005).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공동주택의 옥외 공간은 모두 도시의 공원녹지를 구성하는 골격이며 뼈대이다. 이들의 체계적인 검토와 상충된 기능의 조절, 각 공간의 명확한 위상 정립 등의 과제는 개별적이고 분리된 시각의 접근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연결성과 상호성을 중요시하는 네트워크의 개념(김재익 등, 2003)과 연계를 통해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관생태학의 관점(나정화와 사공정희, 2003; 안동만과 김명수, 2003)은 이러한 공원녹지의 총체적인 체계화와 위상 정립에 유용하다. 이는 거시적 스케일에서의 새로운 공원녹지의 유형화와 네트워크를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상충적 관계의 해결을 유도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요소로 패치(patch), 코리더(corridor), 매트릭스(matrix)의 개념을 도입(이동근 등, 2004)하고자 하며, 이는 각각 거점, 통로, 핵심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핵심은 연결 개수와 순환성에 주목하며 지역의 중심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거점은 도시공원의 각 주제에 맞는 이용과 활동이 가능한 최소의 단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통로는 이들의 연결에 관련한 개념으로, 폭과 길이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를 공원녹지의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그림 1과 같다.

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동주택 내부의 보행로 역시 통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각 거점들은 연결거리의 중첩을 통해 다양한 연결고리를 갖게 되고 순환의 함수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연결거리의 분석은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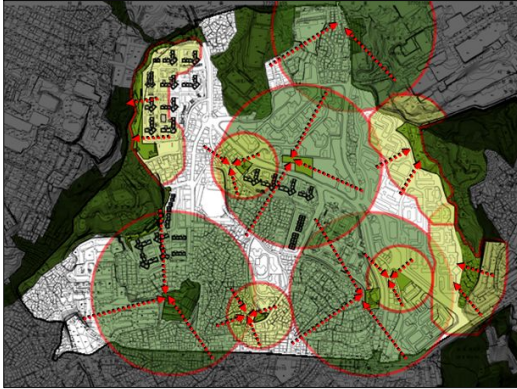


그림 3 기존 공원녹지 유치거리 분석
범례: ■ 기존공원, ■ 신설공원,
● 유치거리(250m), ● 유치거리(100m)



그림 4 기존 공원녹지 연결거리 분석
범례: ■ 기존공원, ■ 신설공원,
● 유치거리(100m), ↔ 연결거리



그림 5 총체적 공원녹지 연결거리 분석
범례: ■ 기존공원, ■ 신설공원, ● 유치거리(100m),
↔ 연결거리, ● 중양광장 유치거리(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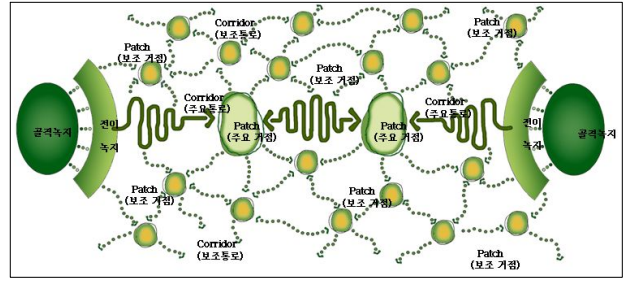


그림 6. 공원녹지 네트워크 기본구상

원녹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적 틀이자 하나의 기준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공원녹지 유형화와 네트워크 구성의 실제에 보다 가까워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IV. 기본 구상과 계획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새로운 공원녹지 네트워크의 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6 참조). 이는 기존의 공원녹지 외에도 공동주택의 중앙광장과 학교라는 새로운 거점을 포함하게 된다. 다섯 개의 응봉근린공원은 핵심의 골격녹지와 전이녹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이의 연계는 주요통로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요거점은 주요통로 상에 위치하는 도시공원과 중앙광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보조거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보조거점의 연계는 보조통로로 설명되며, 이는 주요 통로 밖의 모든 경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공원녹지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성하게 된다.

새로운 유형과 체계의 공원녹지 네트워크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지인 금호동지역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구성하였다(그림 7 참조). 응봉근린공원의 골격녹지를 잇는 주요통로는 공동주택의 보행녹도와 중앙광장을 경유하게 된다. 현재 계획 중인 금호 13, 15구역의 공동주택단지과 2000년 입주한 금호 6구역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주요통로의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일부 지역의 녹색재개발과 생태통로의 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조거점은 주요 거점을 경유하며 활발히 연계될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 현재 계획 중인 금호 16, 17, 18, 19 구역의 중앙광장과 기존에 입주한 금호 5, 7, 8구역, 금호초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조거점의 연계는 기존의 도로변 보행로 및 단지 내부 녹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기준 정립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핵심 중 전이녹지 부분은 금호산과 대현산 골격녹지에 접한 금호 13, 15, 16구역의 선형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 통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대현산 배수지지역을 또 하나의 골격녹지로 보고 인접부분의 전이녹지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대안적 전략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주요 거점과 주요 통로, 보조거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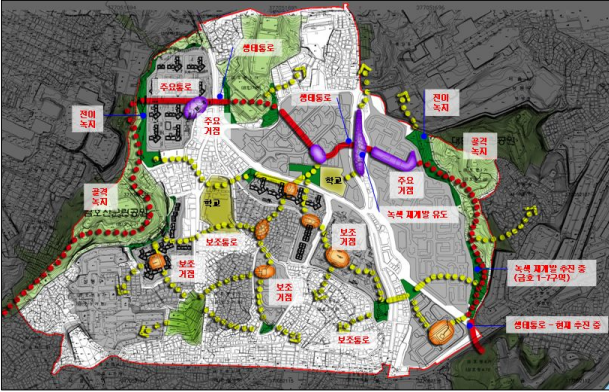


그림 7. 금호동지역 공원녹지 기본계획

범례: ● Patch(주요 거점), - - - Corridor(주요 통로)
● Patch(보조 거점), - - - Corridor(보조 통로)

보조통로, 골격녹지와 전이녹지로 구성되는 공원녹지 네트워크는 금호동 재개발지역 내부의 활발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대상지 외부 인근지역으로의 네트워크 확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새로운 공원녹지 체계의 각 유형에 대한 위상 정립을 가능하게 하며, 이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망 속에서 각자의 기능과 구조를 찾아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금호동 재개발지역은 계획 부지와 기존 주거지, 단절된 응봉의 산줄기와 근린공원, 생활권 공원인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이 각기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며 산재해 있는 곳이다. 새로운 공원녹지의 유형화는 이와 같이 복잡하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심지의 공원녹지 네트워크 체계를 제안한다. 거점(주요와 보조), 통로(주요와 보조), 핵심(골격과 전이녹지)의 각 유형들은 수평적 관 위에서 서로 평등하게 작용하며 상호 관계를 통해 기능하게 된다. 공원녹지의 유치거리 분석은 기존 공원녹지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에 총체적 관점에서의 연결거리 분석은 네트워크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 학교, 공동주택의 중앙광장 등이 가지는 공원녹지로서의 위상은 재정립되며, 이의 연계와 순환은 대상지 외부로의 공원녹지의 확산을 유도하게 된다.

이론 고찰과 이의 검증은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론 고찰은 네트워크 계획을 위한 유형화의 기본 토대를 형성해 주며, 이의 실질적인 계획과 설계의 과정은 보다 구체화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검증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을 통해 각 유형들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개념은 더욱 현실적이 되며,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 정립을 위한 또 다른 가능성을 부여하게 한다. 본 연구는 정책적 문제(법과 제도적 규제 및 구체적인 보상 문제 등), 과정적 문제(시스템과 주민 인식의 전환 등), 그리고 지표의 정량화 문제(공원녹지의 폭과 면적 등과 관련한 수치 등)와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나, 새로운 공원녹지 체계를 위한 유형화와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그 의의를 갖는다.

- 주 1. 응봉근린공원은 매봉산, 금호산, 대현산배수지, 대현산, 응봉산 지역의 다섯 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정되어 있다.
- 주 2. 이와 같은 재개발과 재정비사업을 통해 성동구청의 재개발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성동구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이 1997년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2015년 성동구 환경보전계획 참조.
- 주 3.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sd.go.kr> 및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821012019>.
- 주 4. 도시공원법 제 6조 참조.

인용문헌

1. 강석진, 안은희, 이경훈(2005)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1(12): 19-28.
2. 김재익, 김정환, 김철수, 윤병구, 김한수(2003)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주택연구지 11(1): 5-26.
3. 나정화, 사공정희(2003) 녹지연계망 조성을 위한 거점 분석: 대구광역시 사례. 한국조경학회지 29(6): 37-49.
4. 사공정희, 나정화, 조현주(2007)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가녹지 조성 우선순위 선정. 한국조경학회지 34(6): 10-21.
5. 성현찬, 신지영(2005) 도시공원의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 경기도 권역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3(2): 83-91.
6. 안동만, 김명수(2003) 환경친화적인 도시공원녹지계획 연구: 생물서식처 연결성 향상을 위한 서울시 녹지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1(1): 34-41.
7. 이동근 외 12인(2004)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 서울: 도서출판 보문당.
8. 임승빈(2007)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친인간적 환경설계연구. 서울: 도서출판 보문당.
9.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sd.go.kr> 및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821012019>.